

주간기도정보

2026. 2. 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회자 뿐 아니라 성도도 ‘돌봄의 책임’ 나눠져야”

목데연, 지난 20일 ‘한국교회 돌봄 실태와 과제’ 발표



한국교회 돌봄 사역의 흐름이 과거 목회자나 일부 리더층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뤄지던 양상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의 삶을 돌보는 ‘서로 돌봄’ 양상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지용근)는 지난 20일 ‘한국교회 돌봄 실태와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 조사는 성인 기독교인 1천 명 및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목데연에 따르면, 먼저 목회자들은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를 ‘가장 돌봄이 필요하다’(57%)고 생각했다. 44%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꼽았으며 ‘육체적 질환을 겪는 성도’는 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성도들은 ‘심리적 어려움’(40%)과 ‘영적 침체’(38%)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핵심 돌봄 대상으로 인식했다. 목데연은 “우울, 공황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돌봄 이슈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영적·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전체의 38%로 성도 10명 중 4명가량이었다. 목데연은 “돌봄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나,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지지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교회 돌봄 경험은 성별과 직분, 공동체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 성도의 돌봄 경험률은 45%로 남성(30%)보다 높았고, 중직자일수록 돌봄 경험률이 증가했다. 또, 소그룹 참여 빈도가 높고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경험률이 높았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성도의 돌봄 수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성도 71%가 ‘타인을 돌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돌본 대상으로는 ‘영적 침체 성도’(26%), ‘심리적 어려움 성도’(25%)가 상위에 올랐다. 돌봄을 제공한 주체는 ‘목회자’(44%)가 가장 많았지만, ‘소그룹 인도자’(37%)와 ‘다른 성도’(36%)의 비중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형교회로 갈수록 ‘성도 간 돌봄’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목회자 역시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목회자 중 74%는 “사역 중 본인에게도 돌봄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목데연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인화의 가속화와 정서적 고립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본질적 기능인 ‘돌봄’의 새로운 지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전통적인 육체적 질병 돌봄을 넘어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영적 침체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데연은 심리적·영적 위기에 대한 높은 돌봄 필요성에 비해 실제 실천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회가 집중해야 할 새로운 사역 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목데연은 “성도 2명 중 1명 가까이는 이미 타인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돌봄이 더 이상 목회자 1인에게 집중된 수직적 사역이 아닌, 성도 간 자발적 동역을 통해 ‘서로 돌봄’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돌봄의 의지가 있는 성도들을 훈련해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나아가 목회자도 돌봄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6)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하나님, 교회는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스스로 세워가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소식 앞에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너무나도 미약했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눈을 들어 오직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은혜를 인하여 서로 돌아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직분과 역할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날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한 예수교회로 굳세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청년층 결혼 기피 이유 파악 나선 청년동맹… 청년들 반응 ‘싸늘’

집 구매도 생활비도 모두 부담이라 “결혼은 사치”… 출산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결혼 ‘걸림돌’



최근 북한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담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년들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결혼 하라고 부추긴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22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16일 화대군의 한 직물공장 청년동맹 위원장이 미혼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와 결혼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었다”며 “최근 들어 미혼자가 계속 늘어나자 상부에서 청년

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에서는 서른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적지 않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소식통은 “집안이 가난해서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혼자는 먹고살 만해도 결혼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도 많다”고 전했다.

연인이 있지만 결혼을 미루고 있는 화대군의 한 30대 후반 청년은 “온 가족이 나서서 몇 년 동안 장사를 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꺼낼 수 있겠냐”며 “집 문제만 해결돼도 청년들이 서둘러 결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는 것도 청년들의 결혼 기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아예 식을 올리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한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압박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화대군 직물공장의 청년들은 청년동맹 위원장이 직접 결혼 담화에 나선 것을 두고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만 재촉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실제로 공장 청년들 사이에서는 “담화를 한다고 집이 생기냐, 쌀이 생기냐.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혼은 사치다”, “집이라도 국가에서 마련해주면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싶겠냐”는 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청년동맹 간부들은 이번 담화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을 독려하고 싶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경제난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만 확인하게 됐다”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결혼도 출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시편 39:6-8)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27-28)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북한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 유지만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북한 공산당의 강압적 태도를 꾸짖어 주십시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북한 청년들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 땅에 숨겨두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그들이 오직 구원의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젊은이들이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북한과 열방의 부흥을 꿈꾸는 거룩한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청소년 중독과 성 가치관 왜곡, 교계가 먼저 나섰다

전국 교계, 청소년 중독·성 가치관 회복 연합수련회 확산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 교계가 청소년 중독 문제와 성 가치관 회복을 위한 전국적 연합 움직임에 나섰다. 부산·경남·대구·경북·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청년 연합수련회가 잇따라 열리며, 중독 예방과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합수련회의 특징은 단순한 신앙 집회를 넘어, 현실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중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스마트폰·게임·음란물 등 디지털 환경 속 중독과 왜곡된 성 인식이 청소년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이를 예방·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을 훈련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에이랩아카데미 김지연 약사가 전국 주요 수련회에 초청돼 주목받고 있다. 김 약사는 약학적·뇌과학적 근거로 중독을 뇌의 보상회로와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청소년 눈높이 강의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음란물 중독 예방 교육 특허를 보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부울경·대경 지역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경주 교원드림센터, 충청지역 연합수련회 등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 주최 측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교회가 과학적 근거 기반 교육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교육 공백을 보완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음란물 노출과 성 인식 혼란이 확산되지만 기존 교육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 학부모들은 “도덕적 훈계가 아닌 실제 문제와 해법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라며 “과학적 설명과 예방 중심 접근이 신뢰가 갔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약사는 “중독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 발달 시기의 습관과 영성, 환경을 함께 교정해야 할 문제”라며 “청소년기 왜곡된 성 정보와 중독성 매체 노출은 정서와 관계 형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지금 올바른 교육과 개입이 이뤄진다면 충분한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천 가능한 중독 예방 수칙을 제시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연합수련회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성 가치관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계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겠다는 선언”이라며 “청소년을 살리는 실질적 교육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교회와 학부모가 다음세대의 중독·성 가치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모여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들을 잘못된 환경 속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을 왜곡하고 짓밟으려는 세상과 그 배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실천적인 방법과 예방 교육뿐 아니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다음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